

논술고사 출제의도 및 답안 (인문계열 I)

출제 의도

1. 전반적인 출제의도 및 특징

2016학년도 본교의 논술고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한 다양한 지적 능력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하여 입학 전형 요소로 활용코자 하였다. 논술고사 출제의 출발점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으며, 수험생들이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고 다양한 제시문들의 내용과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원하는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는가를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과서에 수록된 동서고금의 고전이나 양서, 통계자료나 가상의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수준 높은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수험생들이 기존의 교과과정을 얼마나 충실하게 학습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응용능력을 배양해왔는지를 측정코자 하였다. 모든 제시문의 소재와 범위를 학교 교육과정 내에 집약함으로써 별도의 선행지식이나 교과외 과정에 대한 부담 없이도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고교교육 정상화를 도모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2. 문제의 구성

본교의 논술고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논술의 성격을 지닌다.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수험생들이 인문학적 이해능력과 사회과학적 분석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측정하고자 하며, 이에 더하여 통합적 사고, 비교 및 대비 능력, 표현 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논술고사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인문계열 I의 논술고사는 인문학적 소양과 사고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를 묻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1개의 영어 제시문을 포함하여 총 7개의 제시문이 활용되었다.

2016학년도 논술고사에서는 인문계열 I의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표현에 관한 동서양의 관점과 문화가 내포된 제시문을 통해 ‘나’를 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수험생들이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과 접근방법이 예술가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견해를 통해 예술의 개념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통치자의 자세가 서로 다른 시대와 서로 다른 사회 속에서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구분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학생들이 인간과 사회현상에 대하여 수준 높은 식견을 갖추고 있는지 알고자 하였다.

문항 및 제시문 출제 근거

1. 제시문

인문계열 I 제시문 개관

2016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 I에 출제된 제시문들은 크게 인간과 사회의 본성 및 관계를 둘러싼 여러 시각과 관점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문학적 소양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제시문들은 크게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찰이라는 대주제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고전 속의 고민과 예술가들의 자화상 속에 그려진 ‘나’의 모습을 해석할 수 있는 수험생들의 역량을 묻고 있다. 이러한 해석의 다양성을 예술 분야로도 확장될 수 있는데, 이번 논술고사에 활용된 영어 제시문과 관련 제시문은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도 얼마든지 새로운 ‘길’을 향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과 사회 또는 공동체 사이의 관계에 대한 대조적인 접근법 역시 다양한 제시문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 사물의 본성을 유지하면서 ‘나무’를 가꾸는 자세와 철저하게 ‘균중’을 감시하는 패놉티콘의 접근법, 그리고 형식적인 제도의 수립을 통해 지배체제와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동양의 관점 등이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다.

1) 제시문 [가]

제시문 [가]는 정약용의 『수오재기(守吾齋記)』에서 발췌한 제시문이다. 『수오재기』는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담고 있는 고전 수필이다. ‘수오재’는 큰형님의 서재에 붙인 이름으로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이다. 수오재라는 이름에서 발상을 얻어 그동안 ‘나’를 잃지 않고 살아왔는지를 성찰하는 내용의 글이다.

적용 교육과정	2007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교육인적자원부 제2007-79호)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교육과학기술부 제2009-41호)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문학	이승원 외	좋은책 신사고	2014	45-46
		고등학교 문학 I	유병환 외	비상교평	2012	72-74
		고등학교 문학 II	정재찬 외	천재교과서	2012	101-102

2) 제시문 [나]

제시문 [나]는 이주헌의 “‘나’를 외친 화가들”에서 발췌한 제시문이다. “‘나’를 외친 화가들”은 근대 자화상을 통해 거기에 담긴 의미를 논하는 미술 평론이다. 예술가들이 자화상을 통해 자아의식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의 일이다. 갈등의 주체로 자신을 형상화한 프리다 칼로와 인간의 영혼을 진솔하게 그린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램브란트의 사례를 소개한 글이다.

적용 교육과정	2007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교육인적자원부 제2007-79호)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교육과학기술부 제2009-41호)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국어 II	이승원 외	좋은책 신사고	2014	273-275

3) 제시문 [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What is and isn’t art?” 라는 제목의 글에서 발췌한 것으로, 프랑스 출신 예술가인 뒤샹(Duchamp)이 어떻게 새로운 예술 영역을 개척하였는지 소개하고 있다. 새로 그리거나 만든 것만 예술이라고 믿던 당시의 예술관에 도전해서 소변기와 같은 일상 용품을 선택해서 새 이름을 붙이거나 변형시켜 보는 사람들이 그 기성품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도 예술이라고 본 뒤샹의 이야기를 통해 예술의 새로운 갈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보여 주고 있다.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High School Practical English II	이찬승 외	능률교육	2013	112-113

4) 제시문 [라]

제시문 [라]는 김홍규의 “불꽃과 예술에 관한 명상” 이라는 글의 일부이다. 예술의 갈래 구분에 대한 태도가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는 글로 예술의 갈래가 사람들이 다니는 길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이미 나 있는 길을 통해서 갈 수 없는 곳으로 발을 내딛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가면서 그 자취가 새로운 길이 되는 것처럼, 예술도 누군가가 새로운 시도를 해서 의미 있는 작품이 나오면 새로운 예술의 갈래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용 교육과정	2007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교육인적자원부 제2007-79호)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교육과학기술부 제2009-41호)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독서와 문법 II	이남호 외	비상교육	2012	193-194

5) 제시문 [마]

제시문 [마]는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의 관계를 비교하여 배우는 교과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제시되었던 글로서, 원 출처는 『고문진보(古文眞寶)』에 수록되어 있는 중국 당나라의 문인인 유종원(柳宗元, 773-819)이 지은 『종수곽탁타전』이다. 곽탁타가 나무 심고 가꾸는 탁월한 방법에서 정치의 이치를 이끌어 내어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본받고 반성하기를 촉구한 내용인데 본 지문에서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사물의 본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탁타의 나무가꾸기의 비법을 이야기한 부분을 발췌하였다.

적용 교육과정	2007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교육인적자원부 제2007-79호)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교육과학기술부 제2009-41호)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문학 II	김윤식 외	천재교육	2012	177-179

6) 제시문 [바]

제시문 [바]는 독서의 원리 중 ‘비판적 독해’를 배우는 교과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제시된 홍성욱의 글을 발췌한 것이다. 교과서에서는 “통제의 수단으로 제안되었던 원형 감옥인 패놉티콘의 원리가 현대 정보 사회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정보 사회를 비판하

고 있는 글”로 소개되는데, 본 제시문에서는 앞부분에 실린 ‘패놉티콘’의 의미와 유래, 그리고 철학자 푸코가 이를 근대 감시사회 구조에 적용한 이유를 설명한 내용을 인용하였다.

적용 교육과정	2007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교육인적자원부 제2007-79호)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어(교육과학기술부 제2009-41호)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독서와 문법 I	이남호 외	비상교육	2012	127-132

7) 제시문 [사]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게재된 역사서 『사기』의 내용 중 “진(秦), 법가 개혁을 단행하다.”는 제목의 인용문이다. 동아시아 역사와 관련하여 ‘국가의 성립과 발전’을 배우는 교과과정에서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진(秦)나라의 법가 개혁을 소개하는 글인데, 본 문제에서는 엄격한 상벌 제도를 통한 고대의 통제 관리방식을 보여주는 예로서 사용하였다.

적용 교육과정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사회(교육과학기술부 제2009-41호)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동아시아사	안병우 외	천재교육	2014	33

2. 문항

문항 1 - 문항

- 제시문 [가]에서 글쓴이가 본 자신의 모습, 제시문 [나]의 프리다 칼로 자화상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 렘브란트 자화상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여 기술하시오. [30점]

문항 1 - 출제의도 및 해설

이 문제는 정약용이 세상 속에서 자아를 성찰하는 모습과 자화상을 그림으로써 자아를 표현한 두 화가가 성찰한 자아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찾아내게 함으로써 서로 다른 텍스트에서 연관성 있는 소재를 찾아 그 의미를 비교하며 읽는 융합적 사고, 창의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정약용, 프리다 칼로, 렘브란트가 깨달은 바가 차이가 있는지를 찾는 문제이다.

문항 1 - 채점기준

문항	채점기준	배점
1	* 제시문 [가], [나]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 파악	10

문항	채점기준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가]의 글쓴이: 깨달음의 자아, 성찰의 자아 - 제시문 [나]의 프리다 칼로: 세상과 갈등의 자아 - 제시문 [나]의 렘브란트: 내면적 승화의 자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가], [나]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을 규정할 때 뒷받침할 근거 기술 - 깨달음의 자아, 성찰의 자아: 내면적 자아와 대화하는 자아를 서술함으로써 성찰적 자아를 나타내고 있다. 과거 공부, 벼슬길 등 세상사를 쫓아가다가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된다. - 세상과 갈등의 자아: 화살을 맞고 숲 속으로 뛰어드는 사슴으로 자신을 묘사한 '상처 난 사슴'은 분열과 갈등 속에서 겪은 고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내면적 승화의 자아: 렘브란트 말년에 그린 '이젤 앞에서의 자화상'에 그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남루하고 비천한 노인의 모습이다. 기운이 없고, 희망도 없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그림으로써 내면적으로 승화된 자아의 모습, 인간 영혼의 순수함이 드러나는 자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세 가지 자신의 모습을 기술하는 것 이외에 관계 속에서 비교 - 제시문 [가]의 글쓴이가 자신의 모습을 성찰한 것을 직접 논하고 있다면, 프리다 칼로와 렘브란트는 자화상을 통해 드러낸 자아를 평론가가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제시문 [가]는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있고, 제시문 [나]는 자화상이라는 구현물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형상화하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5

문항 1 - 예시답안 및 답안 분석

1) 예시답안

제시문 [가]에 나타난 글쓴이의 모습은 깨달음의 상태, 성찰의 상태이다. 수오의 의미를 깨닫고 성찰을 시작하는 상태로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과 성찰하는 자신의 모습 둘 다를 논의하고 있다. 내면적 자아와 대화하는 자아를 서술하고 있다. 제시문 [가]에서 글쓴이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느라 10년의 세월을 보내고, 벼슬을 하면서 세상일에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지만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온 본인의 처지를 보며 나를 잃어 버렸다고 생각한다. 글쓴이는 큰형님이 쓴 '수오제'라는 말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있다. 그 결과 잃어버리기 쉬운 나를 굳게 지키고 싶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제시문 [나]에서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에 나타난 '나'의 모습은 자아와 세계와의 갈등 속에 있으며 경계선상에 놓여있는 분열적 자아상이다. 프리다 칼로는 유럽계의 피와 인디오의 피를 이어받은 혈통적 갈등과 남성 위주의 세상에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때문에 세상과의 갈등과 충돌을 경험하게 된다. 그 곳에서 남성과 여성, 서구 문명과 인디오 문명,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 같이 이분된 세계의 갈등 속에서 고통을 겪는 나의 모습을 자화상에서 상처 난 사슴으로 그림으로써 갈등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제시문 [다]에서 렘브란트의 자화상에 나타난 ‘나’의 모습은 내면의 만족을 드러내고 있다. 겉으로는 초라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음을 통해 진솔하고 순수한 영혼의 모습을 찾은 자아상이다. 렘브란트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한 예술가인데 영혼의 순수함과 순결함을 찾은 나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가]의 글쓴이가 자신의 모습을 성찰한 것을 직접 논하고 있다면, 프리다 칼로와 렘브란트는 자화상을 통해 드러낸 자아를 평론가가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가]의 글쓴이가 깨달음의 상태의 자아를 논하고 있다면, 프리다 칼로는 갈등의 자아를, 렘브란트는 깨달음의 자아, 갈등의 자아를 넘어서 승화된 자아를 논하고 있다.

2) 답안 분석

문항 1에서는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세 사람의 자아의 모습을 논하되, 그 차이점을 기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수답안에서는 정약용, 프리다 칼로, 렘브란트의 자아상을 깨달음의 자아, 갈등의 자아, 승화의 자아로 규정하여 그 차이를 기술하고 있다. 또한 규정된 자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자신의 모습 간 차이를 범주화하여 기술하고 있다.

문항 2 - 문항

2. 제시문 [다]를 요약하고, 제시문 [라]의 ‘새로운 길’을 제시문 [다]의 예술가가 어떻게 열었는지 기술하시오. [30점]

문항 2 - 출제의도 및 해설

이 문제는 새로운 갈래의 예술이 등장하는 세상에서 예술이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 예술의 갈래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처럼 예술도 어떤 사람이 새로운 시도를 해서 의미 있는 작품이 탄생될 경우 새로운 갈래가 생겨난다는 글의 논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새로 그리거나 만든 것만 예술이라고 보던 시대에 화장실 소변기를 선택해서 ‘샘(Fountain)’이라는 이름을 붙여 예술 작품을 만든 뒤상(Duchamp)의 사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당시의 예술관과 뒤상의 예술관에서 차이를 찾아내어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항 2 - 채점기준

문항	채점기준	배점
2	* 제시문 [다] 내용 요약 - 화장실 소변기 출품 및 전시 거부 내용이 반드시 들어갈 것	5
	* 당시 예술관과 뒤상의 예술관 비교 - 기존 예술관: 새로 그리거나 만든 것만 예술로 인정 - 뒤상: 기성품을 발견하고 선택하여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예술관 제시	10
	* 제시문 [라]의 관점 제시	5

문항	채점기준	배점
	- 예술의 갈래가 고정되지 않고 새로운 갈래가 열리는 것이 누군가 가지 않은 곳을 가면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과 같다고 기술할 것	
	* 제시문 [다]의 예술가가 새로운 길을 연 방식 설명 - 기성품을 선택해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서 사람들이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한 뒤상의 방식을 설명	5
	* 서술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표현력, 분량 배분	5

문항 2 - 예시답안 및 답안 분석

1) 예시답안

제시문 [다]는 화장실 소변기를 선택해서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예술 작품으로 전시회에 출품했다가 예술 작품이 아니라는 평을 받았던 뒤상(Duchamp)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그가 새로운 예술 영역을 개척했는지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뒤상은 흔히 볼 수 있는 화장실 소변기를 선택해서 ‘샘(Fountain)’ 이라고 이름을 붙인 후 전시회에 출품하였지만 전시 위원회로부터 그의 출품작이 지저분하고 비도덕적이기까지 해서 예술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평을 받고 전시를 거부당한다. 뒤상은 자신이 출품한 소변기가 일상 용품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도 아주 아름다운 물품이라고 믿었다. 그 후 한 예술 잡지에 뒤상이 샘이라는 작품을 직접 제작했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기를 선택해서 새로운 이름과 관점으로 제시하여 일상적인 의미가 사라지고 새로운 의미를 창조한 것이 중요하다는 요지의 글이 발표되었다. 뒤상은 새로 그렸거나 만든 것만 예술품이라고 본 기존의 예술관에 도전하여 예술품이 발견되고 선택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자신이 선택했던 일상 용품을 ‘기성품(readymades)’ 이라고 부르면서 기성품에 새로운 것을 더하거나 변화시키기도 하고 새 이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서 사람들이 그 기성품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예술이라고 주장하였다.

제시문 [라]는 마치 새로운 길이 생겨나는 것처럼 예술의 정의도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태초부터 길과 길이 아닌 것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로 갈 수 없는 곳으로 발을 내딛고 그 곳에서 새롭고도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하면 여러 사람들이 뒤따라 걸어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예술도 어떤 예술가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 결과 의미 있는 작품이 만들어지면 예술의 새로운 갈래가 생겨난다고 본다. 새로운 예술의 길을 연 좋은 예가 제시문 [다]에 소개된 뒤상이다. 그는 새로 그리거나 만들던 당시의 방식이 아니라 기성품을 선택한 다음 변화를 주거나 새 이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사람들에게 그 물품에 대해 기존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새로운 예술의 영역을 개척하였다.

2) 답안 분석

본 답안은 우선 제시문 [다]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뒤상이 소변기를 출품한 내용과 전시 거부를 당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새로 그리거나 만든 것만 예술이라고 본 당시의 예술관과 기성품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거나 변형시켜 전시해서 해당 물품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예술 작품이라고 주장한 뒤상의 예술관 사이의 차이도 정확

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진 길로 갈 수 없는 곳으로 발을 내딛어 새로운 것을 찾아내면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 그 곳으로 가 발자취를 남기면서 새로운 길이 만들어 지는 것처럼 예술의 새 갈래도 그렇게 생겨난다는 제시문 [라]의 요지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다]에 소개된 뒤샹의 사례가 예술의 새 길을 연 이야기이고, 그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방식은 새롭게 그리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성품을 선택해서 새로운 이름을 붙이거나 변형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사람들이 그 기성품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이었다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문항 3 - 문항

3. 제시문 [마]~[사]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 1) 제시문 [마]에 나타난 나무를 대하는 탁타의 태도와 제시문 [바]에 나타난 군중을 대하는 권력자의 태도를 대조하여 설명하시오. [20점]
- 2)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에 나타난 통제 방식을 대비하여 논하시오. [20점]

문항 3 - 출제의도 및 해설

인문계열 I의 세 번째 문항은 “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제시문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대조 및 대비하도록 하여 수험생들이 주어진 글을 정확하게 읽고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마]의 ‘나무 가꾸기’의 태도가 어떻게 제시문 [바]의 권력자의 ‘군중 감시’와 대조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하고, 언뜻 비슷해 보이는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의 통치 권력의 통제 방식에서 서로 다른 차이점을 찾아내되, ‘패놉티콘’ 구조와 진나라의 새 법이 지닌 상반된 특징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들에 답하는 과정에서 수험생들은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리를 받는 자’에 대입시켜 보면서, 한 개인이나 한 사회를 효과적으로 돌보고 다스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타율적 지배에 직접, 간접으로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인간의 본성과 자율적 주체성을 지켜갈 수 있을지에 대해 수험생들이 고민해 보도록 하는 것이 출제의 숨은 의도이다.

문항 3 - 채점기준

문항	채점기준	배점
3-1	* 제시문 [마]의 ‘나무를 대하는 탁타의 태도’의 내용들 - 탁타는 나무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 살려주는 방향에서 관리한다. - 무조건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이 잘 발현되도록 처음 토대를 잘 마련해준다. -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지나친 인위적 작용을 가하지 않는다.	5

문항	채점기준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바]의 '군중을 대하는 권력자의 태도'의 내용들 - 패놉티콘 사회에서의 중앙 권력은 은밀한 감시와 규율로 다수 군중을 통제한다. - 권력자는 군중을 끊임없이, 세밀한 부분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 원형 감옥과 같은 '비대칭적 감시 시선'의 구조가 권력자와 군중 사이에 존재한다.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태도를 대조시켜 설명하는 내용들 - 제시문 [마]와 [바]의 공통된 주제를 '관리'(가꾸기, 돌보기, 다스리기)의 맥락에서 파악한다. - '나무 가꾸기'의 관리 목적(개개의 본성 발휘)과 권력자의 관리 목적(감시 통제)이 다름을 인지한다. - '비대칭적 감시 시선'의 체화는 군중의 타율적 자기 감시를 초래하여 자신의 주체적 성찰을 저해한다. 	5
	* 서술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표현력, 분량 배분	5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바]의 통제 방식의 특징들 - 원형 감옥의 구조처럼 보이지 않는 권력자가 다수를 은밀하게 감시하는 통제 방식이다. - 패놉티콘 사회에서 개인은 육체적 형벌이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에서 통제된다. - (원형 감옥에서 간수는 죄수들이 보이지만 죄수들은 간수를 볼 수 없듯이) 비대칭적 감시 시선이 작동하여 군중들의 자발적 자기 검열을 초래한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사]의 통제 방식의 특징들 - 분명하게 제시된 엄격한 상벌제도로 공개적으로 드러내 놓고 통제하는 방식이다. - 극단적인 신체형, 사형, 노비화라는 '육체의 형벌'을 도구로 통제한다. - 백성들을 상호 감시하게 하고 처벌을 두려워하여 따르게 한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방식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대비하는 내용들 - 유사점: [바]와 [사]의 통제 방식이 모두 인간을 옴아매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다. (하나의 중앙 지배 권력이 다수의 피지배층을 통제하는 방식) - 차이점: (1) 보이지 않게 진행되는 은밀한 감시 통제 vs. 공표된 법에 의한 강력한 상벌제도 (2) 자본주의 인간형에 맞는 정신적 차원의 규율 vs. 신체형, 사형, 노비화 등의 육체적 형벌 (3) 엄격한 상벌을 도구로 백성들 상호 감시 vs. '비대칭적 시선' 구조로 자발적 자기 감시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방식의 상반된 특징에 대하여 논하는 내용들 - 3-1번 문항은 단순 대비가 아니라 그 대비된 점들의 의미를 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위의 답안에서 제시된 통제 하는 자와 받는 자 입장이라는 대립각이 아니 	5

문항	채점기준	배점
	<p>더라도 수험생 나름의 분석 시각을 가지고 두 통제 방식이 지니는 의미를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p> <p>- 대립각 예시: (1) "통제를 하는(권력자, 나라의) 입장" vs. "통제를 받는(군중, 백성의) 입장"</p> <p>(2) [사]의 통제방식: 속임수 없는 공개 상벌로 강력한 통제 / 과도하고 극악한 육체적 형벌</p> <p>(3) [바]의 통제방식: 권력자 이미지 손상 없는 효율적 통제 / 교묘하고 사악한 '영혼의 규율'</p>	
	* 서술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표현력, 분량 배분	5

문항 3-1 - 예시답안 및 답안 분석

1) 예시답안

제시문 [마]에서 나무를 대하는 탁타의 태도는 나무의 본성을 그대로 살려주는 방향에서 돌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나무를 무조건 내버려두는 방임적 태도가 아니라, 나무의 성장에 필요한 초기 기초 환경들을 잘 마련해 준 후에는 더 이상의 지나친 인위적인 작용을 가하지 않는 것이었다. 나무를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나무의 성장을 저해하는 사람들과 달리, 탁타의 ‘나무 가꾸기’ 비법은 나무의 본성을 파악하고 그 본성이 잘 발현되기를 기다려 주는 것에 있었다. 이를 인간 사회에서의 ‘관리(다스림)’ 차원에 적용한다면, 탁타의 태도는 제시문 [바]의 군중을 대하는 권력자의 태도와는 상반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원형감옥의 간수와 죄수의 구조처럼, 패놉티콘 사회의 권력자는 군중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사회 구석구석 세밀한 부분까지 감시의 권력을 동원해서 군중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가 잘못이 발견되면 확실하게 처벌하여 규율한다. 이는 인간들의 본성에 관심을 갖기는커녕, 한 사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수 군중을 중앙에서 지배하고 통제하는 태도이다. 심지어 패놉티콘 사회의 ‘비대칭적 감시 시선’이 군중들에게 체화되면, 권력자가 마치 내버려두는 것 같으나 권력의 은밀한 감시는 서서히 군중들의 자발적 자기 검열이라는 효과적인 통제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외부의 통제에 길들여진 타율적 인간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본성을 성찰하고 발현하기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2) 답안 분석

본 답안은 제시문 [마]와 [바]의 핵심적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둘의 상반된 태도를 유기적으로 잘 연결하여 대조시켰다. 전반부에서 탁타의 나무 가꾸기의 비법을 설명한 후에 이를 “관리”라는 맥락으로 전환시켜 자연스럽게 두 제시문 간의 대비의 초점을 명확하게 밝혀주었다. 탁타의 관리 태도가 지닌 개개의 본성을 인정하고 강화하는 긍정적 측면을 지지하면서, 패놉티콘 사회에서의 중앙 권력자의 ‘은밀한 군중 감시’는 바로 그러한 측면을 배제하거나 교묘하게 왜곡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는 방향에서 글을 구성한 점이 우수하다.

문항 3-2 - 예시답안 및 답안 분석

1) 예시답안

우선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에 나타나 있는 감시의 통제와 법령의 통제 두 가지는, 앞서 살펴본 제시문 [마]의 본성을 발현시켜주는 관리 방식과는 매우 거리가 먼 통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바람직하지 않은 두 통제 방식의 특징들을 면면히 살펴볼 때, 그 둘 사이에도 상이점들이 발견된다. 첫째로 [바]의 원형 감옥과 ‘패놉티콘’ 사회 구조 속의 통제 방식은 보이지 않게 진행되는 은밀한 감시인 반면에, [사]의 진나라에서 시행할 통제 방식은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놓은 강력한 법령 및 상벌제도에 의해 진행된다는 차이가 있다. 둘째로 [사]의 진나라 새 법이 내세우고 있는 그 엄격한 처벌은 한 사람만 죄를 지어도 다른 사람들과 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부당할 뿐 아니라, 그 벌이 신체 손상, 사형, 노비화 등 매우 무섭고 극단적인 것이다. 이는 [바]에서 감시 통제 특성과 대조된 ‘육체적 형벌’에 의한 중앙 권력의 통제 방식에 해당되는 반면에, [사]의 방식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통제가 아니라 산업 자본주의 인간들을 관리하기에 맞는 정신적인 측면의 통제라는 점이다. 셋째로 [바]와 [사]의 통제 방식은 모두, 한 중앙 지배 권력이 다수를 통제 관리해가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사]의 백성들은 상벌을 미끼로 서로의 잘못을 항상 감시하게 만드는 상호 통제의 결과가 발생하는데 반하여, [바]의 군중들은 감시의 ‘비대칭적 시선’이 체화되면서 그 보이지 않는 감시자의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어느새 자신이 스스로를 감시하게 되는 자발적 자기검열의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두 통제 방식의 차이점들에 대해 “통제를 하는(권력자, 나라의) 입장”과 “통제를 받는(군중, 백성의) 입장”에서 논하여 보면, 서로 다른 장단점들이 입장에 따라 뒤바뀔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통제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바]의 방식은 은밀한 감시가 끝까지 군중에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권력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웅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통제를 이뤄낼 수 있고, [사]의 방식은 속임수 없는 공개적 상벌을 도구로 신속하고 강력하게 백성을 통치하는 유용성이 있을 것이다. 반면에, 통제를 받는 입장에서 볼 때, [사]의 엄격한 형벌은 백성에게 과도하고 극악한 것에 비하면, [바]의 사회 구석구석에 편만한 은밀한 감시 구조는 정신적 차원이라 신체형보다는 나은 듯이 보이나 통제 받는 자들이 부지불식간에 자기 스스로를 감시하게 만들므로, 사실상 거대한 패놉티콘 사회 속 개인들에게는 육체적 형벌보다도 더 교묘하고 사악하게 통제 당하는 ‘영혼의 규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 답안 분석

본 답안은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통치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그 특징들을 다각도에서 이끌어 내었고 그 상반된 차이점들을 적절한 대립각을 마련하여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였다. 제시문 본문의 핵심어를 사용하되, 자신의 말로 다시 종합해내는 과정을 보여주었고, 무엇보다 단순한 차이점들의 열거가 아니라 통제 하는 자와 받는 자의 입장에서 두 통제 방식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부정적 측면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여 글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우수하다고 하겠다.